

濟州島의 社會文化的 特性과 環境*

— 挑戰·適應·超越의 메카니즘 —

李 昌 基**

一. 濟州文化를 보는 視角

제주문화를 어떤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따라, 또는 연구자가 취하는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사회구조와 문화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의 관점을 종합해 보면 제주문화의 위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견해가 크게 세가지 경향으로 나누어지는 듯하다.

첫째는 제주도를 하나의 완결된 생활공동체로 보고, 제주문화를 독자적인 하나의 문화체계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완결된 생활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적 영역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켜 나가는 자족적 단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도 자족적인 공동생활의 결과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외부사회와의

*본 논문은 「濟州의 人文환경과 自然환경」이라는 주제로 열린 濟州島研究會 제8차 전국학술대회(호텔 제주로얄, 1992년 11월 27일~28일)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수정·확대한 것이다.

** 嶺南大 社會學科

문화적 접촉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시킨 제주도 사회의 생활조건과 제주인의 생활과정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제주문화를 설명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현상적인 제주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자연환경을 제주문화의 일차적인 형성요인으로 중시하며, 나아가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열악한 환경조건과 맞서 스스로 형성시켜 온 고유의 문화적 특성과 정신적 핵심을 찾아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려고 노력하는 교훈적 의도까지 엿보이기도 한다.

둘째는 제주도를 한반도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제주문화를 한국문화의 하위체계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삼국시대에도 이미 백제나 신라와 교류가 빈번하였지만, 麗朝에 이르러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고려에 복속된 이래 제주도는 문화적으로도 한반도 문화권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제주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독자적인 문화체계로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문화의 副文化 혹은 周邊文化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한국문화의 일반적 특성들과 비교하여 제주문화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관심이 많으며, 한반도문화와 제주문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원형을 제주문화에서 찾으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세째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아 및 중국대륙에까지 시야를 넓혀 제주문화가 이들 지역과 어떻게 접촉되는지를 밝히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다. 제주문화는 근본적으로 남방문화인가 북방문화인가, 탐라의 원주민은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인가, 삼성신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등등 제주문화의 원류를 찾으려는 시도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고고학적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면서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¹⁾

1) 각자 약간씩 관점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 연구를 위한 분석단위로서의 지역구분을 濟州島, 韓半島, 東亞細亞로 범주화하는 것은 全京秀(1987:13)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제주문화를 제주도, 한국사회, 동아시아라고 하는 각기 차원을 달리하는 지역적 범주와 관련지워 조명한다면 제주문화의 형성배경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를 하나의 완결된 생활공동체로 보고 제주문화를 독자적인 문화체계로 간주한다면 제주문화의 형성배경이나 형성요인도 제주도의 내적조건에서 찾게 될 것이고, 제주문화를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 파악한다면 한국사회의 중심문화 혹은 보편문화와의 상관성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지역적 범주를 더욱 넓혀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한 부분으로 제주도를 조망한다면 제주도와 연관될 수 있는 보다 큰 문화전파경로에 주목하여 제주문화의 근원적인 뿌리를 밝히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문화의 형성배경에 대한 견해들도 제주문화의 위상을 어떤 차원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環境適應論, 周邊部文化理論, 外來文化流入說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環境適應論은 생태학적 관점의 대표적인 견해로서 문화의 생성과 변용과정에 환경조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문화를 인간이 생태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성시킨 결과물로 파악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제주문화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제주도가 갖는 자연환경을 문화형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다. 열악한 자연환경에 합리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제주문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환경결정론에 빠지게 되지만, 현존 생활문화의 일차적인 형성배경을 설명하는 데는 강한 설득력을 지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채택하는 관점이다. 제주문화의 형성배경을 다룬 대부분의 학자들의 논의는 넓게 보면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외래문화와의 접촉이나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는 학자들도 기본적으로는 삶의 터전인 환경조건에 영향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는다.²⁾

2) 환경적응론이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주인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을 열악한 환경조건을 극복하고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宋成大, 1986. 濟州道, 1983). 한편 이기욱은 제주문화의 연구에 환경결정론적인 사고의 극복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李起旭, 1989a).

周邊部文化理論은 특정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동일한 문화권 내의 문화적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문화격차로 설명하려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제주도를 한반도의 문화권에 부속된 변방지대 혹은 주변부로 간주한다. 한반도의 중심문화가 지리적으로 고립된 주변지역에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였거나 일단 전파된 문화요소가 중심문화의 변화에 상응하여 변화하지 못함으로써 제주문화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제주문화를 한국 전통문화의 하위문화 혹은 선행문화의 잔존형태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³⁾ 이러한 견해는 현존의 제주문화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근접된 문화와 접맥시켜 해석하려는 입장이며, 외래문화 전래설에 비해 제주문화를 보는 시각을 훨씬 좁혀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外來文化傳來說은 문화의 형성과 변용과정에 선진 문화집단과의 접촉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제주문화의 형성배경을 제주도나 한반도라는 좁은 영역에 국한해서 보지 아니하고 보다 거시적인 문화전파의 경로를 추적하여 제주문화의 원류를 찾으려고 한다. 남방의 해양문화가 해로를 따라 전래되었거나, 북방의 대륙문화가 중국대륙 혹은 한반도를 거쳐 제주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러한 관점은 제주도의 고대사회나 기층문화의 원류를 찾으려는 시도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⁴⁾ 장기간에 걸친 몽고의 지배를 중시하여 몽고문화의 영향을 강조하는 견해도, 비록 일부의 언어현상과 민속분야에 한정된 논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향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견해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면서 최근에 몇몇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관점에서 도서성이론과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는 관점

3) 제주문화의 특성을 한국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나 한국의 전통문화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대부분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제주문화를 한국문화의 하위문화 혹은 주변문화로 이해하는 시각이 저변에 깔려있다.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수성을 육지의 유교문화가 침투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거나(崔在錫, 1979),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잔존형태로 파악하는 견해(李昌基, 1991)들은 이러한 시각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4) 제주도 무속이나 설화의 계통을 추적하는 연구(현용준, 1983, 1986. 玄丞桓, 1991), 탐라고대사회에 관한 논문(全京秀, 1987) 등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있다.

島嶼性理論은 바다에 의한 고립과 한정된 토지라는 두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島嶼性(insularity)〉의 개념으로 제주문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지향을 말한다.⁵⁾ 바다에 의한 고립은 물자의 유통과 정보의 교환에 장애를 가져오며, 한정된 토지는 제한된 자원에 인간이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시키게 된다는 것이다(Vayda & Rappaport, 1963). 이러한 관점은 넓게 보면 환경적응론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환경적응론이 기후풍토나 자연환경의 직접적 영향을 강조하는데 비해 도서성이론은 지리적 고립성을 일차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는 관점은 제주인의 소외된 삶과 심층심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恨의 정서를 해명하고 극복하여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 속에서 나타난다. 열악한 환경조건에 더하여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피지배와 수탈의 역사적 과정이 제주인의 소외된 삶과 한의 정서를 더욱 뿌리깊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제주인의 소외의식과 한의 정서는 한편으로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식 혹은 분리주의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강렬한 중심부지향의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玄吉彦, 1992).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은 제주인의 소외의식과 한의 정서가 함의된 문학작품과 설화, 민요 등을 중시하며, 각종 민란과 역사적 사건 등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제주민의 의식을 찾으려고 노력한다.⁶⁾

5) 庚詰仁과 李起旭은 최근 도서성이론으로 제주문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일련의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으며(庚詰仁, 1984a, 1984b, 1986. 李起旭, 1984a, 1984b, 1989a), 姜景璿은 제주도애의 적응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전적 도서성이론을 소개하므로써 제주도의 경제적 제약요인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암시하고 있다(姜景璿, 1981). 특히 李起旭은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서, 그리고 하위문화의 특성을 이루는 도서적 상황에 적응하는 기제로서 제주문화를 설명하고자 한다(李起旭, 1989a). 그러나 도서성이론이 고립된 도서지역으로 이주한 문화가 원래의 문화와 상이한 형태로 분화·변용되는 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틀(李起旭, 1984a: 2)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을 도서성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二. 環境에 대한 人間의 對應樣式과 意識構造

제주문화의 위상과 형성배경에 관한 이러한 여러가지 견해들은 하나 하나가 모두 제주문화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 틀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 자체만으로 제주문화를 전부 설명해 줄 수는 없다. 그들이 갖는 설명력은 논의의 관점이나 차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대 탐라인의 계보를 규명하고 그들이 이식하였을 제주문화의 원초적 형태나 계통을 밝히려는 경우에는 거시적인 문화전파의 경로를 추적하는 외래문화유입설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한국문화 속에서 제주문화가 갖는 특성이나 변이성을 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반도와의 관련성 위에서 제주문화를 설명하는 주변부 문화이론이 보다 유용한 설명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제주문화의 생성 유지 발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제주도 내부의 환경조건을 도외시하고서는 제주문화를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문화영역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문화는 생활양식의 총체이며, 인간의 삶은 환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부사회와의 문화적 접촉이 제주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다.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바다를 통해서 남방의 해양문화와 만나거나, 한반도를 거쳐서 북방의 대륙문화와 접촉하는 일이 매우 빈번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문화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그 문화가 모두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수용되더라도 또 많은 부분은 거부되기도 한다. 일단 수용된 문화라고 하더라도 고정불변의 형태로 존속되는 것은 아니다. 전파된 문화가 수용되거나 거부되는 배후에는

6) 이러한 관점은 제주인의 삶을 다룬 많은 문학작품들이나 제주도의 역사를 통해서 제주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길언(1986, 1992)과 김영화(1980, 1992)의 글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미 제주도의 내적 환경조건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용된 문화가 그 사회의 삶의 조건에 맞도록 변용되어가는 과정에도 환경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더구나 제주도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상당한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자족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완결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문화의 형성에 미치는 환경조건 영향도 훨씬 직접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문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먼저 그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제주사회의 내적 환경조건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은 삶의 터전이며,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는 인간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동시에 환경은 인간의 삶을 강하게 제약하는 외적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주어진 환경조건에 합리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다.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인 작용을 보내며, 지혜롭게 환경을 이용하고 개척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의 삶의 방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이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나타난다. 도전과 적응과 초월의 메카니즘이 그것이다.⁷⁾ 환경이 인간의 삶을 기쁨지게 하는 터전이 되

7) 원래 생물생태학에서 사용하던 적응(Adaptation)의 개념은 “생물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Seymour-Smith, 1986: 3). 이러한 적응개념 속에는 “환경은 유기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유기체는 환경조건에 일방적으로 순응할 뿐”이라는 관념이 저변에 깔려있다 (Hawley, 1950: 16). 그러나 생물생태학에서 사용되는 수동적인 적응개념으로는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양상을 적절하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적응의 개념을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외적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활동양식 뿐만 아니라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환경조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활동까지도 적응으로 본다. 더 나아가서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여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활동양식까지도 적응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지 못하고, 삶을 고달프게 하거나 강하게 제약하는 열악한 조건이 될 때 이러한 대응방식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인간이 열악한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조건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외적 힘에 대항하여 그것을 파괴하거나 개변하고자 하는 도전의 메카니즘이 표출된다. 도전의 메카니즘은 삶을 제약하는 외적 힘을 격파하고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주체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삶을 위협하는 외적 존재가 자연환경이라면 이러한 의지는 자연에 도전하여 그 위협을 극복하고자 하는 개척자적인 삶의 자세로 나타난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강인한 제주인의 생활의지는 바로 도전의 메카니즘이 표출된 것이다. 자립심이나 독립심이 매우 강한 제주인의 의식구조도 열악한 환경조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도전의 메카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위험의 대상이 인간 혹은 인간집단인 경우, 그러므로 그 위험이 역사적인 상황으로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도전의 메카니즘은 저항과 반항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도전과 저항을 통해서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제주민의 간절한 염원은 가공의 비범한 인물에 의탁하여 대리 성취시키고자 하는 설화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배세력에 대한 저항의식과 그로 인한 분리주의적 성향(玄吉彦, 1992)은 종속과 수탈의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도전 메카니즘의 표출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록 좌절된 삶의 형태로 종결되지만 많은 장수설화(玄吉彦, 1981) 속에서도 도전과 저항의지를 읽을 수 있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수난의 역사적 경험이 반복될 때 이러한 저항의식은 배

적응의 개념을 이와같이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환경에 대응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 양식을 전부 적응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시키는 결과가 되며, 필자가 말하는 도전, 적응, 초월도 모두 광의의 적응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응의 개념을 너무 확대하여 과도하게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된다면 다양한 인간의 활동양식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설명도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필자는 환경에 대처하는 인간의 작용양식을 도전, 적응, 초월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필자가 사용하는 적응의 개념은 주어진 환경조건에 적절히 순응하여 환경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삶의 방식을 질서지워 가는 소극적인 대응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타의식으로 고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을 위협하는 외적 힘이 너무 강력하여 극복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전이 철저히 좌절된다면 인간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두가지 방향으로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도전을 포기하고 현실에 철저히 순응하는 적응의 메카니즘이며, 또 하나는 현실조건으로부터 탈출하거나 그것을 뛰어 넘으려고 하는 초월의 메카니즘이다.

적응의 메카니즘은 주어진 환경조건에 적절히 순응하여 환경에 적합하도록 삶의 방식을 질서지워가는 소극적인 대응양식이다. 한정된 자원의 소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노동 생산성을 최고도로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요소들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환경에의 적합성이 강조되는 합리적인 적응이 요구된다. 제주인의 정신적 특징으로 지적되는 <조낭정신>과 검소한 생활태도, 실용주의와 합리주의, 형식과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을 앞세우는 규범체계 등은 열악한 환경에 합리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의 적응메카니즘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초월의 메카니즘은 삶을 위협하는 외적 강제력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현실로부터 탈출하거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탁하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실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고통의 현장을 떠나는 모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과도한 공납과 부역을 피해 육지로 도피했던 조선시대의 출륙현상이나 일제시대의 도외이출은 이러한 현실탈출의지가 저변의 동기로 작용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탈출의지는 육지에 대한 동경과 이상향을 그리는 정서로 형상화되어 제주민의 의식 속에 혹은 신화나 설화 속에 내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로부터 탈출하여 미지의 세계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과 모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를 종교적으로 승화시켜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의 형태로 표출시키게 된다. 생태조건이 열악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한 지역사회에서 종교적

의례가 발달하는 현상은 바로 초월의 메카니즘이 표출된 것이다. 제주도에 서 각종 민간신앙이나 무속이 성행하고 있고,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중히 여기는 의식이 매우 강렬한 것도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여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초월의 메카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통을 수반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열악한 환경에 대응하는 인간의 대응 양식은 이와같이 도전의 메카니즘, 적응의 메카니즘, 초월의 메카니즘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 메카니즘은 제주인의 의식구조와 생활태도를 설명하는데 뿐만 아니라 물질문화나 관습, 제도 등을 설명하는 데도 매우 유용한 설명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주문화는 제주인이 오랜 세월을 걸쳐 제주도가 지닌 환경조건에 대응하여 살아온 흔적이기 때문이다.

三. 家族制度에 나타난 濟州文化의 特性

1. 傳統的 韓國家族의 構成原理

결혼과 더불어 부모가족과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서구의 핵가족과는 달리 전통적인 한국가족에서는 장남이 부모가족과 동거하므로서 가족의 창설, 확대, 축소, 해체의 과정이 분명하지 않고, 장남에서 장남으로 이어지면서 영구히 존속된다. 여기에서 한국가족의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일단 창설된 가족이 결코 해체되지 아니하고 출생과 사망에 의해 끊임없이 성원만 교체하면서 영구히 존속되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은 가계의 계승을 지상의 가치로 의식하고, 가계의 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가계의 계승은 〈부계의 원리〉 〈직계의 원리〉 〈장남의 원리〉에 의해 수행되며, 이것이 가족관계, 가족제도, 친족제도의 기본원리가 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가족은 〈먼 조상에서부터 자손만대에 이르는 부계의 초시간적인 제도체〉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崔在錫 1966: 653-666).

조선중기 이후 부계친족집단의 결속이 강화되고 조직화되면서 한국사회에 이념적인 전형으로서 보편화된 이러한 가족구성원리는 현실 가족생활

속에서 개인에 대한 집의 우위성, 문중조직의 강화, 가장의 권위, 장남우대 상속과 부녀자의 낮은 지위, 정조관념의 강화와 이혼·재혼의 금기, 조상숭배와 제사중시, 장남봉사, 양자의 성행 등의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2. 濟州島 家族制度의 非父系的 原理와 父系的 原理

이러한 한국가족의 구성원리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의 가족제도에는 상호 모순되는 듯한 두가지 원리가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에는 부계의 가계계승을 강조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원리와는 배치되는 非父系的 요소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계계승원리와 동일한—어떤 면에서는 더욱 강화된—모습도 뚜렷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가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남분가와 균분상속의 전통, 부계혈연집단의 결속약화, 조상제사의 분할 등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과는 매우 상이한 모습들이다. 또한 제주도에는 부녀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남녀의 사회적 접촉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이혼과 재혼에 대한 금기의식이 대단히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장례나 혼례과정에 출가한 딸이나 사돈댁 또는 외가친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육지의 전통적인 가족과는 다르다(崔在錫, 1979. 金惠淑, 1982. 李昌基, 1991, 1992). 이러한 현상들은 다분히 비부계적인 요소들이며 부계의 가계계승을 지상의 가치로 인식하는 한국가족의 구성원리로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반면에 제주도 가족에서도 전통적인 한국가족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중시하는 남아선호의식이 매우 강하며,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제사를 중시하였다. 조상을 명당에 안장하기 위하여 지극한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얻기 위한 축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실제로 많이 행해졌다. 문중조직이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제사를 장남이 전담하는 곳에서는 종손의식도 뚜렷이 나타나고, 아들이 없을 때는 반드시 양자를 들이려고 노력한다(崔在錫, 1979). 이러한 관행들은 다분히 부계적인 요소들이 강하

게 반영된 것들이며, 부계의 가계계승을 강조하는 한국가족의 구성원리로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면서도 가족제도와 친족제도에 관한 한 한국의 전통가족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원리를 달리하는 부분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계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부계적 특성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두가지 모습은 일견 양립할 수 없는 상호모순으로 비쳐질 수 있다. 전통적인 한국가족을 설명하는 부계의 가계계승원리로서는 일관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二元的 構成原理의 共存論理

제주도를 한반도와 동일한 문화권으로 보고, 한국의 전통가족을 보는 시각으로 제주도의 가족제도와 친족제도를 바라보게 되면 분명 제주도 가족에는 상호 모순되는 두가지 원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계적이면서도 동시에 비부계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가족 및 친족제도에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두가지 요소, 즉 부계적 요소와 비부계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문화전과론적 입장에서 제주도 문화를 거시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주도의 지리적 입지를 고려하여 여러 유형의 문화가 복합된 이중구조로 설명할런지 모른다. 또 제주문화를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 보고 문화전과과정의 문화격차나 문화변용과정의 문화지체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부분적으로는 매우 유용한 설명이 될 수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문화를 구성하는 극히 작은 부분, 예를 들면 특정한 친족 용어나 특정한 의례절차의 한 부분 또는 특정 생활도구 등의 상이성과 유사성을 설명하는 데는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문화체계를 설명하는 데는 충분한 논리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문화는 <하나의 전체>로서 체계를 이루고 있고, 모순된 원리가 하나의 체계 속에서 장시간 공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족제도나 가족생활의 양식도 문화의 일부분으로서 일차적으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조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환경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 가고자 하는 일종의 생존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제주도 가족에 두가지 원리가 공존하고 있는 현상을 환경에 대한 제주인의 두가지 대응양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가족과 상이한, 그래서 보다 더 제주도적이라 인식되어 온 소위 비부계적 특성들은 열악한 환경에 합리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제주인의 생존전략 즉 적응의 메카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빈약한 자원과 매우 열악한 기후풍토 속에서 가족노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여 최대한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조가 단순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 산업사회는 물론 자원이 극히 빈약한 사회에서 핵가족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환경에 대한 합리적 적응의 소산인 것이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도 삶의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나 신분계층에서 핵가족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농업생산 방식은 수리시설의 공동이용과 집약적인 노동투입을 필요로 하는 수도작 농업이 아니라 개별적인 노동투입이 용이한 전작농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전작농업과 나잠어업에 여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성원의 수가 많고 구성이 복잡한 친자 중심의 가부장적 직계가족보다는 남녀의 지위가 비교적 평등한 부부중심의 핵가족적 형태를 유지하기가 더욱 쉬운 것이다. 제주도의 장남분가와 핵가족화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합리적 적응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형식과 명분을 중시하기 보다는 능력과 실질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규범체계도 형식적 의례에 충실하기 보다는 실질과 능력을 좇아 형성되게 마련이며, 주민들의 사회관계도 부계친만의 폐쇄적인 결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친가, 외가, 처가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긴밀히 협동하고 결합한다. 이와같이 실질과 능력을 추구하고 합리적 적응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제주인의 생활여건이 의식구조에 있어서는 합리주의, 실용주의, 개인주의를, 생활태도에 있어서는 소박하고 근검절약하는 태도를 형성시키게 하였으며, 가족제도에 있어서는 전

통적인 한국가족과 상이한 소위 비부계적 특성들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전통적인 한국가족과 매우 흡사한,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소위 부계적 특성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필자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여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초월의식의 발로로 해석하고자 한다.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신앙의 형태로 표출된다. 자원이 빈약하고, 토질이 척박하며, 기후의 변화가 매우 심한 제주도의 환경조건은 인간으로 하여금 적응의 한계를 절감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을 한층 가중시키게 한다. 제주도가 안고있는 이러한 환경조건은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적응을 강요하는 조건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자에 의탁하여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원초적 동기를 자극시키게 된다. 제주도에 각종 민간신앙이나 무속이 성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지가 바탕이 되는 것이며, 조상신을 숭경하고 제사를 중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조상은 단순히 〈먼저 살다간 자〉가 아니라 자손의 고통회복을 주재할 수 있는 절대자로서 신격화 된다. 명당을 찾아 조상을 안장하고 후히 제사지냄으로써 조상의 음덕이 자손의 현실생활에까지 미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상제사를 담당할 아들의 획득이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위한 축첩, 양자, 사혼 등의 관행이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봉사손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외손봉사〉나 〈까마귀 모른 식개〉를 통해서라도 제사를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중시하는 관행은 한국사회의 공통적인 문화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가족에서 행해지는 조상제사가 부계의 가계계승의지를 핵심원리로 하는 것이라면 제주도의 조상제사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고자 하는 동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 통과 의례 중에서 출생과 관련된 돌, 생일, 회갑 등이 별로 중요시되

지 않고 혼인의례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는 데 비해 유독 장례와 제사만이 중시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며, 형식적인 유교문화가 쉽게 수용되지 않으면서도 장례례의 의례절차에 있어서만은 유교적인 형식이 쉽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 가족제도에서 나타나는 두가지 상이한 원리는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두가지 대응양식—적응의 메카니즘과 초월의 메카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모순된 원리의 양립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두가지 원리의 공존인 것이다. 그것이 모순으로 비취지는 것은 부계의 가계계승을 핵심원리로 하는 한국의 전통가족을 보는 시각으로 제주도 가족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四. 맺는 말

제주도 문화를 제주인의 삶의 바탕 즉 내적인 환경조건에서부터 이해하고 제주인의 의식구조와 제주도의 가족제도를 도전의 메카니즘, 적응의 메카니즘, 초월의 메카니즘으로 설명하고자 한다고 해서 외부사회의 문화적 접촉이나 그를 통한 문화전파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한반도의 문화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를 격해 고립되어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문화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일단 전파된 문화가 쉽게 변화하지 않아 한반도의 선행문화가 제주도에 잔존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인과관계의 규명은 제주도 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필요하고도 유용한 방법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과도적인 문화현상이나 부분적인 문화요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체계 혹은 오랜 세월 에 걸쳐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문화의 기본구조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외적인 영향보다도 그 문화가 터잡을 수 있는 내적인 조건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전파나 문화격차 혹은 문화지체

32 濟州島研究 9輯(1992)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들은 전파된 문화를 수용 또는 거부하고 변화를 지체시킨 내적 조건부터 검토한 바탕 위에서만이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姜景瑋

1981 〈古典의 島嶼性에 대한 考察〉 『제주대논문집(사회과학편)』 13.

高南旭·高昌堦·庾結仁

1986 〈한국사회에서의 도시와 육지간의 접합에 관한 연구〉 『제주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23.

高昌堦

1984 〈濟州文化의 社會科學的 理解에 관한 研究: 共同體意識을 中心으로〉 『濟州島研究』 1, 濟州島研究會.

金永和

1992 〈문학작품 속에 비친 제주인의 삶과 환경〉 제주도연구회 제8차 전국 학술대회 발표논문.

金永和·玄吉彥

1980 〈濟州說話를 통한 濟州島 精神 考究〉 『제주대논문집(인문학편)』 12.

金恒元

1990 『濟州島住民의 正體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金惠淑

1982 〈夫婦間 意思決定에 관한 研究(Ⅰ): 제주도 농·어촌 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0-3, 대한가정학회.

1983 〈濟州市 家庭의 夫婦間 意思決定에 관한 研究: 농·어촌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한국가정관리학회.

宋成大

- 1984 〈三無精神 形成에 대한 地理學的 照明〉『濟州文化的 再照明』, 도서출판 一念.

申幸澈

- 1980 〈濟州道民의 社會·文化 意識上的 傳統性〉『제주대논문집』 11.

梁英雄·金鐘太·金炳澤·李起旭

- 1990 〈韓國文化속의 濟州地域文化的 特殊性과 發展方向〉『社會發展研究』 6, 濟州大 社會發展研究所.

庾喆仁

- 1984a 〈일상생활과 島嶼性: 濟州島文化에 대한 認知人類學的 接近〉『濟州島研究』 1, 濟州島研究會.
- 1984b 〈濟州島와 陸地部間의 社會接合: 濟州社會構造와 文化的 正體性〉『濟州文化的 再照明』, 도서출판 一念.
- 198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耽羅文化』 5,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李起旭

- 1984a 〈島嶼文化的 生態學的 研究: 濟州島 隣近 K島를 중심으로〉『人類學論集』 제 7 집, 서울대 인류학연구회.
- 1984b 〈島嶼와 島嶼民: 馬羅島〉『濟州島研究』 1, 濟州島研究會.
- 1989a 〈제주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한국문화인류학』 21, 한국문화인류학회.
- 1989b 〈濟州島 蛇神崇拜의 生態學〉『濟州島研究』 6, 濟州島研究會.

李昌基

- 1991 〈濟州島의 祭祀分割〉『韓國의 社會와 歷史』(崔在錫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一志社.
- 1992 〈가족과 친족〉『濟州道誌』, 濟州道.

34 濟州島研究 9輯(1992)

全京秀

1987 〈上古 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濟州島研究』 4, 濟州島研究會.

濟州道

1983 『濟州道民의 三無精神』 濟州 : 일신사.

趙惠貞

1982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서울 : 심설당.

1992 〈제주 잠녀사회의 성 체계와 근대화〉 全京秀 編, 『韓國漁村의 低發展과 適應』, 서울 : 집문당.

崔在錫

1967 『韓國家族研究』 서울 : 民衆西館.

1979 『濟州島의 親族組織』 서울 : 一志社.

玄吉彥

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서울 : 흥성사.

1986 〈제주전설과 제주사람들의 삶의 양식〉 『濟州文化의 再照明』, 도서출판一念.

1992 〈濟州文化와 그 意識의 低流〉 『전환기의 제주』, 제주국제협의회.

玄丞桓

1991 〈飛揚島 說話의 樣相과 國土浮動觀〉 『耽羅文化』 11,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玄容駿

1978 〈濟州島의 基層文化〉 『한국문화인류학』 7,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濟州島 巫俗研究』 서울 : 집문당.

玄平孝의 7인

1979 〈耽羅精神探究〉 『濟州大 論文集』 11.

Hawley, Amos H.

1950 『*Human Ecology: A Theory of Community Structure*』. The
Ronald Press Company.

Seymour-Smith, Charlotte

1986 『*MacMillan Dictionary of Anthropology*』 MacMillan Press Ltd.

Vayda A. P. & Roy A. Rappaport

1963 〈Island Cultures〉 in F. R. Fosberg, ed. 『*Man's Place in the Island
Ecosystem*』, Bishop Museum Press.